

# 물때따라 열고 닫히는 해변은 장흥으로 이어지고

##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 남파랑길 78코스



군학해변 백사장에 설치된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 안으로 득량도가 액자 속 사진처럼 다가온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다시 남파랑길을 찾는다. 보성읍을 지나 산비탈 곳곳에 녹차밭이 형성되었다. 북재 근처는 산비탈이 온통 녹차밭이다.

녹차의 고장 보성답다. 그래서 보성 앞에는 항상 '다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보성차밭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산비탈 녹차밭과 마을, 저수지,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바다와 산봉우리들이 한데 어울린 풍경은 언제 봐도 한 폭의 그림이다.

보성차밭전망대를 지나 울포솔밭해변에 도착했다. 울포해수욕장은 1.2km에 달하는 고운 모래와 부드러운 해안선이 있고, 백사장을 감싸고 있는 솔숲이 울창하다. 해수욕장 앞으로 득량만이 펼쳐지고, 득량만 건너에서 고흥반도가 길게 이어져 바다풍경을 아름답게 해준다.

울포해수욕장 모래밭에 서니 오늘따라 바람이 드세다. 울포해수욕장에 올 때면 가장 먼저 득량만 한 가운데에 떠 있는 득량도와 눈을 마주친다.

울포해수욕장 백사장을 걸으면서 남파랑길 78코스를 걷기 시작한다. 고운 모래가 발바닥에 푸근한 기운을 전해준다.

회천수산물위판장을 지나 해변길을 따라 걷는다. 해변 안쪽은 농경지와 명교마을이 자리하고, 바깥쪽은 득량만이 펼쳐진다. 득량만 한가운데에는 득량도가 거대한 배처럼 떠 있다. 수평을 이룬 바다에 우뚝 서 있는 득량도는 해변마을 주민들에게는 다정한 친구가 되고, 조업 중인 배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명교해변으로 들어선다. 해변은 길이 1.2km, 폭 60m에 이르는 백사장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명교해수욕장은 수령 50~60년생 곰솔이 모래밭을 감싸고 있다. 울포해수욕장과 가까이 있지만 명교해수욕장은 한산하고 조용하다. 명교해변을 걷고 있는데 갈매기 떼가 바다에 앉았다 날기를 반복한다. 이곳 명교해변은 조선수군 재건에 나선 이순신장군이 잠시 머물며 말을 쉬게 하고 군사를 점검했다는 곳이다.

회천생태공원야구장을 지나자 일림산 아래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일림산 자락 넓은 들판을 앞에 두고 여러 마을이 등지를 틀었다. 일림산 남쪽자락에는 북재 근처 대한다원과 함께 보성을 대표하는 녹차밭인 제2대 한다원이 자리하고 있다. 멀리 아침에 넘어왔던 북재도 바라보인다.

일림산 남쪽에 자리한 너른 들판에는 봄에는 감자를 심고, 가을에는 쪽파를 많이 재배한다. 회천감자는 득량만에 불어온 해풍의 영향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담백하다. 이곳 회천면에서는 득량면과 함께 전남에서 가장 많은 쪽파를 생산한다.

바닷물이 민물과 만나는 곳에서는 갈대들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꽃들이 쓸쓸함을 자아낸다. 이런 쓸쓸함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살찌운다.

갈대는 갯벌과 함께 하천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지금은 만조 때라 바닷물이 갯



바닷물이 민물과 만나는 곳에서는 갈대들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꽃들이 쓸쓸함을 자아낸다.



한승원문학산책길은 여다지해변을 따라 이어진다. 바다를 열고 닫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다지해변이라 불린다. 백사장을 둘러싼 해변에는 팽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뤘다.

벌을 덮고 있지만 물이 빠지면 갈대 주변에는 검은 갯벌이 드러난다.

도로를 따라 걷다가 군학항에 도착했다. 도로 안쪽에 군학마을이 자리를 잡았고, 해변은 백사장을 이뤘다. 군학해수욕장이다. 군학마을은 보성군 서쪽 끝에 위치한 마을이다. 1597년 8월 17일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바다로 출항한 곳이 이곳 보성군 회천면 군학마을이다. 조선 세종 때 이곳에 수군만호진이 개설됐다.

군학해변은 소나무 숲이 울창해 캠핑하기 좋은 곳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백사장에 설치된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 안으로 득량도가 액자 속 사진처럼 다가온다. 만조에다가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와 바닷물이 백사장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군학해변을 지나 다시 2차선 도로를 따라서 걷는다. 해변 언덕길에서 장흥군을 알리는 표지판이 길손을 맞이한다. 길 아래로는 여전히 득량만과 득량도, 고흥반도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장흥 땅에 들어서자 안양면 용곡해변과 수문해변이 길게 타원을 그린다. 서남쪽 멀리 장흥 천관산이 하늘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장흥지역의 산과 득량만이 어울린 모습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용곡마을을 지나 수문해수욕장으로 들어선다. 수문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1km에 이르는 해수욕장이다. 지금은 만조시간대라 대부분의 모래밭을 바닷물이 덮어버렸지만 건조 때는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다. 수문항 근처에는 '장흥키조개거리'가 조성돼 있고, 키조개상설 전시판매장도 갖추고 있다.

키조개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진 삼각형 모양의 껍데기가 마치 곡식을 까부르는 키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키조개는 보통 수심 3~50m 정도에서 자기 몸의 2%정도를 갯벌 속에 묻은 채 살아간다. 장흥에서는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무려 84%를 생산한다.

수문항을 지나 수문천을 건너니 '한승원문학산책길'이라는 표지판이 서있다. 한승원은 2021년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아버지이자 소설가다. '노벨문학상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문학산책길'이라 쓰인 현수막도 붙어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장흥은 술한 문인들을 배출했다. 한승원, 이정준, 송기숙, 이승우 등 유난히 소설가가 많다.

한승원은 1886년부터 여다지해변과 득량도가 내려다 보이는 장흥군 안양면 울산마을에 살면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승원문학산책길은 여다지해변을 따라 이어진다. 바다를 열고 닫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다지해변이라 불린다. 백사장을 둘러싼 해변에는 팽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뤘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기에 그치지 않고 좋다. 길을 걷고 있으면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것 같다. 산책길에는 한승원의 작품을 담은 시비 30기가 곳곳에 놓여있다.

남파랑길은 여다지해변을 지나 해변도로를 따라 곡선을 그으며 이어진다. 사촌마을에 가까워지자 장재도라 불리는 작은 섬이 눈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장재도는 섬 양쪽으로 연육교가 놓여 있다. 북쪽은 장재교, 남쪽은 정남진대교다.

장재교 입구를 지나 해변에 자리한 사촌마을로 들어선다. 바다는 사촌마을 안쪽으로 좁고 깊숙하게 만입되어 있다. 사촌마을 앞바다는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지대로 변한다. 주민들은 사촌해변 갯벌에서 쭈꾸미, 낙지, 키조개를 잡는다. 마을 옆 간척지에는 벼들이 수확을 앞두고 있다. 길은 방조제를 따라 이어진다. 해장마을을 지나니 바다는 민물과 만나고, 육지는 간척지 들판이다. 남상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는 갈대가 숲을 이뤘다.

득량만을 따라 이어지는 해변에도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장갑수·여행작가)



명교해수욕장은 길이 1.2km, 폭 60m에 이르는 백사장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군학해변은 소나무 숲이 울창해 캠핑하기 좋은 곳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수문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1km에 이르는 해수욕장이다. 수문항 근처에는 '장흥키조개거리'가 조성돼 있다.



장흥 땅에 들어서자 안양면 용곡해변과 수문해변이 길게 타원을 그린다. 서남쪽 멀리 장흥 천관산이 하늘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장재교 입구를 지나 해변에 자리한 사촌마을. 사촌마을 앞바다는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지대로 변한다.

**※어해쪽지** ▲남파랑길 78코스는 득량만을 끼고 이어지는 해변을 따라 보성에서 장흥으로 넘어가며 걷는 길이다. 보성과 정흥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울포해수욕장과 수문해수욕장을 지나게 된다.

※코스 : 울포해변→명교해변→군학해변→수문해변→한승원문학산책길→사촌마을회관→해장마을회관→원동마을회관

※거리, 소요시간 : 18.9km, 5시간30분 소요

※출발지 내비게이션 주소 : 울포솔밭 해변 입구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우리 539

-1)